

2024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갈라디아서

메시지 9

아들의 자격 —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

성경: 엡 1:3-6, 히 2:10-11, 사 43:7, 갈 3:23-24, 4:4-7, 19

- I.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의도하신 영원한 목적은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분의 표현이 될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다. 아들의 자격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다 — 엡 1:3-6, 3:11, 롬 8:28-29, 요 1:12-13, 계 21:7.
- A.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고 … 아들의 자격에 …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 엡 1:4-5.
 - B. ‘거룩하고’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되고 분별될 뿐만 아니라, 속된 모든 것과 다르게 되고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과 다르시고 구분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거룩하시며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 C.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 그분의 아들들이 된다(롬 15:16, 갈 4:6).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것을 영적인 복, 그 영의 복이라고 부른다.
 - 1. 아들의 자격을 위한 거룩하게 됨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관심하지 않으므로 아들의 자격 안에 살지 않을 수도 있다 — 롬 15:16, 8:4, 엡 5:26.
 - 2.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따라 살고, 그 영으로 섬기고,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온종일 전적으로 그 영으로, 그 영과 함께, 그 영을 따라 처신하기를 배워야 한다 — 롬 1:1, 9, 8:4, 빌 3:3, 스후 4:6.
 - 3.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영 안의 합당한 자양분으로 자라야 한다.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곧 성경을 읽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집회에 참석함으로 보양될 수 있다 — 요 8:31-32, 엡 5:26, 계 2:7, 시 73:16-17, 22-26, 77:13.
 - D.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며 ‘사랑 안에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졌다 — 엡 1:4, 비교 3:17, 4:2, 15-16, 5:2, 6:24, 계 2:4.
 - 1.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 2.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도 또한 이 신성한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 요일 4:19, 시 31:23 상, 116:1, 막 12:30.
- II.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셔서 그들을 영광, 곧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 안으로 이끄신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들화 하시는 것’이다 — 히 2:10-11, 엡 1:4-5, 롬 5:10.

- A. 히브리서 2 장 10 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신다고 말한다. 11 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거룩하게 됨이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 B.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 장 4 절과 5 절에 대한 더 충만한 이해를 갖게 한다. 4 절은 ‘거룩하고’라고 말하고 5 절은 ‘아들의 자격에 ... 이르도록’이라고 말한다. ‘거룩하고 ...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은 거룩하게 하심이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임을 또다시 보여준다.
- C.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이 신성한 경륜의 중심과 신약의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심의 요점이다 — 살전 5:23-24.
- D.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 하기 위해 붙들어 주는 선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그분의 신격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이 붙들어 주는 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분의 경륜의 모든 단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1. 찾으시는 거룩하게 하심, 곧 초기의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이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은 찾으시는 영, 가책받게 하시는 영 때문이었다 — 벰전 1:2, 눅 15:8-10, 17-21, 요 16:8-11.
 - 2. 구속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위치적인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이다 — 히 13:12.
 - 3.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의 시작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유기체, 곧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 고후 5:17, 요 1:12-13, 3:5-6, 8, 벰전 1:3, 딤후 3:5.
 - 4.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의 연속은 우리의 혼을 생각에서부터 혼의 모든 부분까지 새롭게 하여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새 창조물의 일부로 만든다 — 롬 12:2 하, 엡 4:23, 고후 4:16, 갈 6:15.
 - 5.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심, 곧 매일의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재조성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일부분인 새로운 조성체로 만든다 — 고전 3:12, 고후 3:16-18, 롬 12:1-2, 시 68:19.
 - 6.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같은 형태를 이루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같은 형태를 이루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만든다 — 롬 8:29, 빌 3:10.
 - 7.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완결하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몸을 구속하여 우리 몸을 변형시킴으로 우리가 충만히 영광 안에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의 완결된 합병체, 곧 그들의 생명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이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빌 3:21, 롬 8:23, 살전 5:23, 계 21:2-3, 7, 9-11, 22.

III. 그리스도의 범리적인 구속은 우리를 율법의 감호에서 이끌어 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 그분의 신성한 ‘아들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표는 아들의 자격이다 — 갈 4:4-7, 19, 롬 5:10.

- A. 하나님은 우리의 범리적인 구속을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그분의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 갈 4:4, 6, 3:13-14.

1.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 곧 그분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율법의 감호에서 구속하시어 그들이 아들의 자격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 갈 3:23-24, 4:4-5.
 2.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영, 곧 생명의 영(롬 8:2)을 보내신 것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가 실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갈 4:6, 요일 5:11-12, 벧후 1:4).
 3. 아들의 영은 아들의 다른 모습이다.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그리스도이셨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는 아들의 변형이신 그 영이시다 — 요 1:14, 고전 15:45 하.
- B.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 갈 4:6.
1. ‘아바’는 아람어이고, ‘아버지’는 헬라어 ‘파테르’를 번역한 것이다. 아람어 칭호와 헬라어 칭호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아버지께 외칠 때 더욱 강한 애정이 표현된다. 이렇게 애정 어리게 외치는 것은 친아들과 그를 낳은 아버지의 친밀한 생명 관계를 암시한다 — 막 14:36, 히 5:7, 애 3:55-56, 비교 눅 15:18, 20-24.
 2.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우리의 마음 안에 보내어지셨다. 사실상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셨다(요 3:6, 롬 8:16). 그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숨겨졌기 때문이다(벧전 3:4).
 3. 한 면으로는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은 우리가 이 영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외친다(롬 8:15). 또 한 면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신다(갈 4:6).
 4. 이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연합되었고(고전 6:17),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5. 또한 이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우리에게 실재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 비교 마 5:3, 8.
 6. 우리가 영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수록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달콤하고 친밀한 느낌은 더 깊어질 것이다.
 7.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때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분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러한 증언은 또한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하여 이 생명에 따라 생활하고 행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에 부합되게 한다 — 롬 8:15-16.

IV. 바울은 믿는 이들의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자아와 세상을 대치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갈 4:19.

- A.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온전히 참여하고 신성한 요소를 소유하는 것이 견고하게 된다 — 롬 8:29.
- B.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위한 것이다 — 히 2:10, 계 21:7, 10-11, 사 43:7.